

2010 MAY·JUN Vol.81 05·06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표지설명 : 두메양귀비

백두산 천지 주변에 자생하는 귀한 꽃으로 꽃말은 '위안'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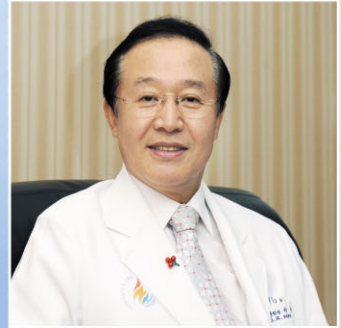
2010. 05+06

CONTENTS

May.Jun Vol.81

04	개원기념사	열정과 지혜를 모아 꿈이 있는 병원, 감동을 주는 병원으로
06	행복을 전하는 글	배꼽
07	Well-being Report	난 전통 막걸리 넌 옛지 있게 복분자 막걸리, 어때?
10	의학정보 1	자가면역 질환 베체트병
12	의학정보 2	소아 사시
15	건강책갈피	머리를 열지 않고 치료하는 뇌졸중 혈관내 치료
18	운동처방사의 운동법	오래도록 안전하게, 효과 백배 등산 즐기기
20	무료수술사업	지역 언론사와 함께한 소외계층 대상 무료수술
22	글이 머무는 풍경	아직도 눈물이 나는 '친정엄마' 가슴을 울리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겨울철악의 눈꽃 산행기
28	감사의 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최선이란 이름의 나를 만들 것이다
30	CS 경연대회	CS BOOM UP 경연대회
31	특독약물상담	임상시험 참여와 신약
33	협력병원탐방	전병원
34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파랑새 소식
38	알립니다	인사동정 /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 Global Inha 퀴즈 퀴즈 제54회 / 발전기금 / 무료공개강좌

열정과 지혜를 모아
꿈이 있는 병원, 감동을 주는 병원으로!



14th Anniversary

사랑하는 의료원 가족 여러분

신록의 계절에 우리 인하대병원의 탄생을 돌아보고 도약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는 개원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장기근속상과 공로 및 모범직원 상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며, 개원 기념식 행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하대병원은 고 정석 조중훈 회장님께서 기업의 사회환원(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일환으로 의학발전과 국민보건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공헌이라는 고귀한 정신에 따라 의료의 불모지였던 인천에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설립되어 1996년 5월 27일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 이후 의학분업과 같은 제도의 변화와 통제중심의 건강보험 정책으로 순탄치 않은 어려운 경영환경이 펼쳐졌습지만, 전교직원의 일치 단결된 열정으로 유수한 대학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일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지만, 모두 살아서 생동하고 있음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개원14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와 새롭게 전개되는 도전의 양상과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하대병원은 14년 전 인천지역 최초의 대학병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의료계는 환자가 고객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병원 입장에서 병원의 대형화, 전문화, 국제화, 의료산업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병원들은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흐름을 놓치고 변화의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개원 14주년을 기점으로 신뢰 받는 병원, 고객만족의 병원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로 구축하고, 의료계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모방할 수 없는 서비스로 고객에게 신뢰를 쌓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존경 받는 인하대병원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인하대병원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00병상을 증축하여 특성화 전문센터를 갖춘 1,5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으로 거듭나고, 진료는 특성화하고 연구가 균형을 이루며 의학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중심의 병원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선진진료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국제화 병원을 실현하여, 명실공히 개원 20주년이 되는 2016년에는 국내 TOP 7 병원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3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과제인 한진택배지역 600병상 규모 증축사업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타당성 검토결과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사회에 상정하여, 추진여부 및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 승인과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1,5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으로 재탄생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연구중심의 병원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임상연구센터와 임상시험센터 중심으로 국가지정 지역임상시험센터, 이미 송도에서 가동하고 있는 유타 DDS연구소, 알레르기환경보건센터, 자량 할만한 GMP시설 및 동물실험실, 호미오세라피 등 이미 대학병원 상위권의 연구 인프라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된 금년도 최대 국책과제였던 HT(Health Technology)고속화 사업은 우리병원에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HT고속화 사업은 5년간 100억 원이 지원되는 국책사업으로, 제록은 소화기 질환의 의료제품에 대한 유효성평가 서비스 센터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초에 예정인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국책사업유치에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성되는 수년 후에 인하대병원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제인 선진진료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화 병원 실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JCI, 전 직원이 지금 매우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2일 날 JCI인증 선포식을 갖고 시작해서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힘들게 고생하셨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final accreditation을 위한 survey가 내달 꼭 한 달 남

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저력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꼭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JCI 인증으로 Global Standard & Smart Hospital 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슴 벅찬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자 맡은바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직원 여러분께서도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열심히 배우고 일하는 교직원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반드시 받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고객이 신뢰하는 병원, 고객이 만족하는 병원, Academic한 병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병원을 만들어, 동북아 mediport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한 직장이 되고, 우리의 고객과 인천시민 아니 전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고 존경 받는 병원이 됩시다.

영광된 신화는 예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길은 원래부터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마음, 한 방향으로 가면 그 발자취가 바로 길이 되는 것처럼, 현실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읍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나부터'라는 혁신적 마인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조금 더 돌보는 사랑을 가집시다.

모든 의료원 가족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꿈이 있는 병원, 감동을 주는 병원, 희망의 병원을 만들어 갑시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의료원과 교직원 모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인하대학교 의료원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교직원 모두의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인하대학교의료원 의료원장 박승림

배 꼽

박
수
영

불효가 생각나거든
당신의 중심을 잡고 있는
잘생긴 배꼽을 바라보십시오.

어머니의 우주와
나의 우주가
탯줄로 연결되어
질기고 질긴 인연의 끈으로
생명을 가꾸었던 흔적입니다.

몸과 마음이
방황의 세월 속으로
떠내려 갈 때
잘생긴 배꼽이 맨 먼저 울었습니다.

지금도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말 없는 태생의 봉인
잘생긴 배꼽을 바라보노라면
한 생명의 무게를 감당하신 어머니가 고맙습니다.

난 전통 막걸리

넌 옛지 있게 복분자 막걸리, 어때?



막걸리에는 이름도 많다. 희다해서 백주, 탁하다 해서 탁주, 집집마다 담가먹지 않는 집이 없다하여 가주, 농사지을 때 새참이라 하여 농주, 제사지낼 때 올린다 하여 제주, 백성이 자주 즐겨 마신다고 해서 향주, 나라를 대표하는 술이라 하여 국주라고도 한다.

이 여러 이름의 촌놈 막걸리가 최근 열풍이 불면서 변신을 하고 있다.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에서 향아리 숙의 술 익는 소리에 마음을 사로잡힌 은조(문근영 분),
우리도 막걸리의 톡톡 튀는 매력에 빠져보자.

濁酒

각 국을 대표하는 술들이 있다. 프랑스의 포도주, 영국의 진, 러시아의 보드카, 독일의 맥주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은 무엇일까?

미국 영어사전에 한국의 대표 술은 '소주'라고 등극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대중적인 술이었고, 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함께 있는 막걸리는 변신과 발전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술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쌀과 누룩으로 빚은 전통 막걸리가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 양조장에서 미국 밀가루로 술밥을 만들고, 일본 누룩으로 막걸리를 빚고 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는 현재 우리나라 막걸리의 변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유기농 쌀만을 고집한다거나 순 우리 쌀로 빚은 막걸리가 맛 뿐 아니라 포장 등 다양한 변신으로 대중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막걸리의 화려한 변신, 바로 일등공신은 이명박 대통령의 막걸리 사랑 때문이다. 대통령의 공식 외교행사에서 막걸리가 건배주로 사용되는 것은 쌀 소비 촉진을 강조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이다.

막걸리의 효능

쌀과 누룩으로 빚어 그대로 막 걸러내어 만들었다 하여 붙여진 막걸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주이다. 제조방법은 찹쌀, 멥쌀, 보리, 밀가루, 감자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찐 다음에 수분을 건조시켜 누룩과 물을 섞고,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시켜 청주를 떠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걸러 짜낸다.

용수를 박아서 떠내면 맑은 술인 청주, 물을 더 넣어 걸쭉하게 걸러내면 탁주이고 찹쌀을 원료로 하면 찹쌀막걸리, 거르지 않아 밥풀이 그대로 떠 있으면 동동주라고 한다. 좋은 막걸리는 감, 고, 산, 십미(덜 익은 감처럼 뚝은 맛이 잘 어울려져 적당한 감칠맛과 청량미가 살아 있으며, 알코올 성분은 6~7%이다).

막걸리는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섭취한다는 유기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알맞게 들어간 알코올 성분은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해 피로물질을 제거하므로 혈액순환에도 좋다. 게다가 비타민과 각종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어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고려대학부설 한국영양문제연구소 주진순·윤태종 교수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막걸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막걸리가 같은 농도의 주정을 함유한 다른 술에 비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술은 독할수록 간에 부담을 주며 혈당치가 떨어져 혼수상태에 빠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한 변화를 보여 고혈압 등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막걸리에는 일반 주류와는 달리 상당량의 단백질과 당질, 콜린, 비타민B2 등이 함유되어 있다. 이중 단백질과 당질은 술을 마시므로써 일어나는 에너지원이 되는 혈당의 감소 현상을 막아주고 비타민B2와 콜린은 간의 부담을 덜어 주어 알코올성 간경화증이나 영양실조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된 것이다.

옛지 있는 퓨전 막걸리 등장

와인에서 출발한 웰빙주 바람은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을 줄뿐 아니라 효모가 살아있고, 유산균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건강코드와 잘 맞아 열풍을 몰고 막걸리가 등극한 이유가 된다.

이러한 트렌드는 전통 막걸리의 틀을 깨고 청 매실을 첨가한 과실 막걸리, 에스프레소를 넣은 갈색 막걸리, 요구르트를 넣은 미색 막걸리, 북분자를 넣은 보라색 막걸리 등 입맛과 취향을 고려한 퓨전식의 별종 막걸리가 등장했다.

과일과 막걸리를 섞으면 우유 빛 막걸리는 빨강, 노랑, 초록 등 천연색 칵테일로 변신하여 텁텁함이 사라지고, 시큼한 향이 사라져 마시기 편해진다. 또 이 막걸리 칵테일은 사발이 아닌 칵테일 잔에 담아 색다른 느낌으로 마실 수도 있다. 설탕이나 꿀을 넣어 얼린 뒤 갈아서 마시는 막걸리 셔벗, 막걸리 아이스크림 등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방영되었던 드라마 '스타일'에서 한식 셰프 류시원이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 서양식 칵테일 잔에 따라 사람들과 나누어 마시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단순 알코올 기능을 넘어 막걸리를 이용한 마사지, 음식에 뿌려 먹는 막걸리 식초 등 다양하게 변신하고 있다.

또한 맛의 고급스러움에 맞춰 페트병의 포장을 벗어나 슬림하고 작은 병에 담아 한 손으로 들고 마시기 좋게 만들어 홍대 앞 클럽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어쨌든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용기에 담아 낸 막걸리는 더욱 세련되게 어필하고 있다.

6월의 남아공 월드컵은 막걸리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지원 '16강 막걸리 선발대회'에서 선정된 16강 막걸리는 월드컵 기간에 서울역 광장,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막걸리 페스티벌 행사와 월드컵 응원전 등에도 활용된다고 한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은 막걸리와 함께 하는 한마당이 될 듯싶다. 사실 막걸리의 전통 속에는 이미 스포츠 음료로서의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농주여서 일하다가 새참으로 마시기도 하였고, 마시고 힘을 내어 다시 일할 수도 있다. 또 등산 끝에 하산주로서 단연 막걸리는 으뜸이다.

2010년 6월의 막걸리는 농주대신 운동장과 광장을 무대로 흥을 즐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되리라. 예전에 그랬듯이 막걸리는 '땀'과 함께 하는 동반자였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마치고, 열띤 응원을 하고 나서 마실 수 있는 운동장의 술로 승리의 축하를 듣기에 안성맞춤이다.

막걸리를 마시고 난 다음날, 갈증이 없는 이유는 6%의 알코올에 91%의 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셈이다. 맥주는 배가 부르고, 화장실을 자주 드나들어야 하지만 허기진 배를 든든히 채워주기까지 하는 막걸리는 '응원주'로서 손색없지 않은가?

시름하고 다스 허접한 술로 여겨졌던 막걸리, 60~70년대의 어려웠던 시절 삶의 힘을 주었고, 한국 사회의 격동기를 겪으면서 시름을 달래주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희노애락을 담은 그저 '술'이었다. 그러나 이제 효모가 살아있고 유산균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건강코드와 저도주 웰빙주 바람으로 막걸리는 이제 건강 식음료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과 세련미가 있는 웰빙주로 부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6월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는 민족주, 응원주, 축하주로 분명 거듭나리라.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막걸리!~~ 제대로 알고 바르게 마시기!!!

막걸리를 마시면 머리가 아프다?

좋은 막걸리를 마시고 나면 아무런 탈이 없다. 예전에는 막걸리의 알코올도수를 높이기 위해 공업용 원료를 넣었지만 최근 생산되고 있는 막걸리는 예전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머리가 아프지 않다. 만일 머리가 아프다면 불량품으로 의심해야 한다.

밑에 가라앉은 게 많으면 나쁜 술이다?

막걸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것은 찌꺼기가 아니라 항암 성분 등 건강에 필요한 효소가 농축돼 있으므로 휘저어 마시는 게 좋다. 보통 빛은 지 2~3일이 지난면 침전물이 생기는데, 딸기, 복분자, 복숭아 등 과일 주스를 넣어 마시기 좋은 것은 막걸리생막걸리이다.

막걸리는 맥주보다 덜 취한다

현재 시판 중인 막걸리의 알코올 성분은 6~7%다. 4~6%인 맥주보다 약간 높다. 막걸리는 적당히 마시면 유산균 등이 들어 있어 소화도 잘되고 건강에 이롭지만 많이 마시면 역시 숙취를 피할 길 없는 술이다.

막걸리는 취취 저으며 마셔야 제 맛이다

막걸리 밑에 일부러 침전물을 만들어 위의 말한 액체만 개운하다며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막걸리의 참맛과 효능을 모르는 것이다. 막걸리의 생명인 효모, 유산균, 비소화성 식이섬유 등은 모두 이 침전물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시로 저어가며 마셔야 웰빙주인 막걸리의 참맛을 즐길 수 있다.

막걸리는 하얀색일수록 좋은 걸까?

막걸리 색상의 차이는 발효를 위해 넣는 누룩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의 차이일 뿐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다. 일본식 누룩인 쌀누룩은 흰색에 가깝고, 밀누룩은 노리끼리한 색을 띤다. 우리의 쌀누룩은 깔끔하고 단순한 맛으로 밀누룩보다 깊고 풍부한 맛이 난다.

막걸리야, 부탁해~ Tip

Tip, 하나. 산정호수에 가면 신데렐라 언니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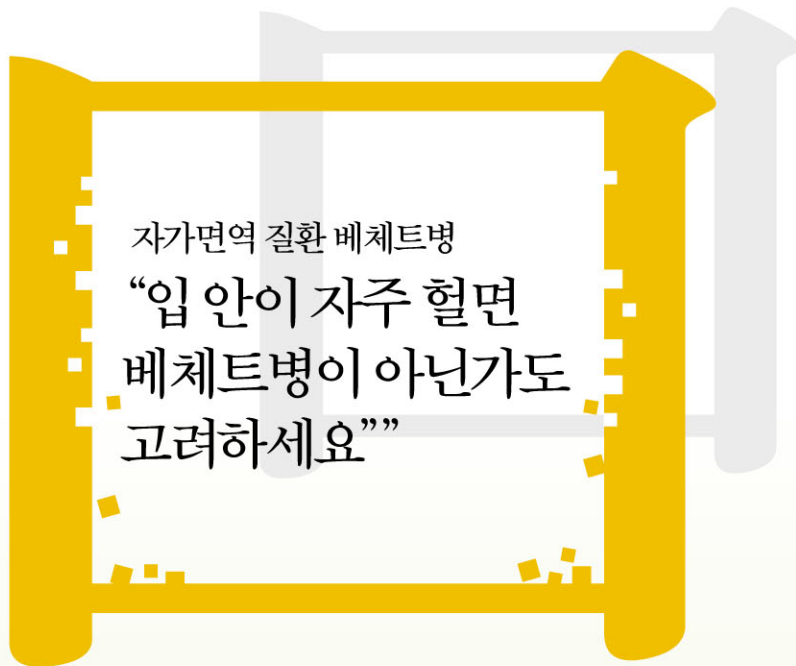
'신데렐라 언니'에서 문근영(은조)과 서우(호선)가 한 남자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대성참도'가 세트는 경기도 포천의 산정호수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20억대 비용이 투입된 만큼 고풍스러운 기와와 담장. 그리고 안티크한 내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트장 앞으로 산정호수를 배경으로 한 천혜의 경관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평가다. 은조가 가장 좋아했던 곳, 가혼과의 사랑이 있고 '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막걸리의 매력에 빠져들었던 발효실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경기도 포천의 산정호수로 '신인나들이'를 떠나보자.

Tip, 둘. 전통주학교, 막걸리 체험교실

종로에 있는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는 전통주학교 막걸리 체험교실을 열어 누구나 쉽게 막걸리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술 담그기 이론과 실습, 시음, 시식으로 진행되며 박물관 관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담근 전통주는 개인이 가져갈 수 있다(예약전화: 02-741-5477).



2 병원을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병원가기 망설여지는 알쏭달쏭 질환들 ①



베체트병이라 하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입안궤양 한두 번쯤은 생긴적이 있을 것이다.
 늘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무심히 지나기가 쉬운데, 1년에 3 번 이상 자주 생긴다면 베체트병 등 다른 질환이 있지 않나
 확인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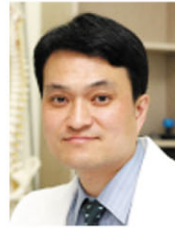
Behcet's Disease

주부 이○○ 씨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전에도 늘 피곤하면 입 안이 자주 혈고
 궤양(살이 파인 것)이 여러 군데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트레스가 심해지니까 다시 입 안이 혈고 궤양이 생겼다. 그
 녀 좋아지겠지 하고 있었는데, 성기 주변에도 커다란 궤양이 생겨서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베체트병이 의심된다
 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다.

베체트병의 원인

베체트라는 병명은 이 병을 처음 알린 터키 의사 홀루시 베체트의 이름에서 나왔다. 베체트병은 일종의 자가면역질환
 이다. 면역작용은 외부로부터 침입해 오는 병원 등 우리 몸에 해로운 여러 물질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여러 원인에 의해 면역세포에 문제가 생겨 자신의 몸을 오히려 공격하는 질환, 내 몸 안에서 일어나
 는 일종의 쿠데타를 자가면역질환이라 한다.

다른 이름으로 ‘실크로드병’이라고도 불리는데, 흥미롭게도 유독 북위 30°와 45°사이의 극동 아시아와 서남 아시아
 지역, 즉 옛날 실크로드의 인접지역에서 잘 발병하고 증상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성별로는 여자에게서 발생 빈도가 더
 높고, 주로 20~3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 10만 명당 7.3명의 빈도로 발생하며 그 중 15%가 가족력이 있다.



권성렬 교수 | 류마티스 내과

• 전문분야 :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 진료시간 : 월(오전), 화(오후), 수(오후), 목(오후), 금(오전)

• 문의 : 류마니즘센터 ☎ 032-890-2210~1

베체트병의 증상

입 안에 염증이 1년에 3차례 이상 발생하고 입 안 여러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며, 성기에도 염증이 동반된다. 성기 염증은 남자는 고환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회음부에 염증이 자주 발생한다. 피부증상은 아프고 단단한 붉은 결절(결절홍반), 여드름모양의 피부병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여러 관절에 아픈 관절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증상이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에 걸쳐 나타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자가면역에 의한 전신성 혈관염으로 혈관이 흐르는 곳이면 신체 어디든지 징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체트병이 눈에 발병하면 포도막염, 망막혈관염 등의 안과질환이 반복되며 방치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 대동맥, 정맥, 중추신경, 장기에까지 염증이 확산될 경우 대동맥이 풍선파리처럼 늘어나 파열될 수도 있고, 혈변 증상이 있어 내장내시경으로 장출혈을 확인할 수도 있다. 위 증상들은 심한 경우이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임상경과는 매우 다양하다. 베체트병과 연관성이 잘 알려진 HLA-B51 유전자 양성인 경우, 전신증상(중추신경계 침범, 대동맥, 정맥질환 혹은 위장관 천공 등)이 일찍 발현되는 경우라면 예후가 좋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초기증상인 구강궤양, 외음부궤양 등을 추적 관찰해 꾸준히 치료를 하면 예후가 나쁘지만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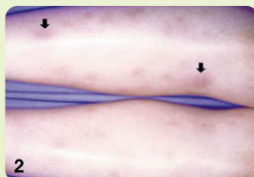
베체트병의 진단

베체트병 국제연구그룹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은 1년에 3회 이상의 반복적인 입안 궤양이 있으며, 음부 궤양, 안구 병변, 피부 병변, 폐서지 반응 등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 베체트병이라 진단할 수 있다. 폐서지 반응이란 일회용 주사바늘로 팔 아래 부분에 생리식염수를 소량 주입 후 24-48시간이 지난 후 고름이 생기는 반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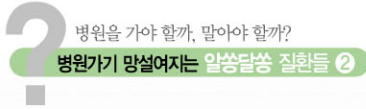
베체트병의 치료

침범된 장기와 질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환자마다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입 안에만 궤양이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로 세척하거나 뿌리기도 하며, 면역을 억제하는 여러 약제를 사용한다. 병세가 악화될 때 면역글로불린 주사가 사용되기도 하며, 생물학적 제제인 중양피사인자 억제제를 사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기도 한다.

베체트병은 드문 대부분의 경우 증상을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 치료를 잘 하면 병의 악화와 이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 있다. 때문에 병에 대한 주기적이면서도 계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 1 베체트병은 구강과 성기의 반복적인 궤양이 특징이고 구강궤양은 감기에 걸리거나 피곤할 때 자주 재발한다.
- 2 결절성 홍반으로 주로 다리에 생기는 반점이다. 초기에는 붉고 누르면 매우 아프나 수일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지만 자주 재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아 사시

취학 아동의 약 3% 사시 진단, 조기진단이 중요!!

사시가 있으면 미용상의 문제 뿐 아니라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시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인 소아 때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약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시가 있으면 양안시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양안시 기능이란 양안을 동시에 사용하여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양안시가 되어야 정밀한 입체시가 가능해집니다.

Strabismus



사시란, 사물을 볼 때 두 눈 중 하나가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을 말하는데 취학 아동의 약 3%가 사시로 진단을 받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사시의 원인

사시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유전적 원인 외에도, 외안근의 해부학적 이상, 대뇌 이상, 감각 이상, 외상 등 여러 가지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시의 분류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안구가 돌아가는 위치에 따라 내측으로 돌아간 경우를 내사시, 외측으로 돌아간 경우를 외사시, 상측으로 돌아간 경우 상사시, 하측으로 돌아간 경우를 하사시로 분류하기도 하고,

강성모 교수 | 안과
 • 전문분야 : 안성형, 사시
 • 진료시간 : 월(오전), 수(오전), 금(종일)
 • 문의 : 안과 ☎ 032-890-2400



사시가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 항상 나타나는 경우를 현성 사시, 양안시 기능은 기능하나 융합을 중단할 때 나타나는 잠복사시 혹은 사위, 정상시에는 두 눈이 바르게 정렬되어 있으나 피곤하거나 멍하게 있을 때 나타나는 간헐성 사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력, 사시 발생 연령 등 자세한 문진이 필요하며 고도의 원시가 있을 경우 내사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력 검사도(대개 조절마비 굴절 검사) 필수적입니다. 사시나 사위의 존재 유무를 평가하기 위해 한눈가림검사, 가림안가림검사, 교대가림검사 등을 시행하며, 영유아 등 협조가 어려운 환자에서는 환자의 눈에 빛을 비추어 각막 반사가 나타나는 위치로 사시 유무를 판정하는 검사법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사시는 외사시와 내사시로, 나이가 어릴수록 내사시의 비율이 높고 나이가 증가하면서 점차 외사시의 비율이 높아져 취학 아동에서는 약 80%가 외사시, 20%가 내사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사시

조절성 내사시 조절이란 선명한 물체의 상을 얻기 위해 눈의 굴절력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말하며 이런 조절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내사시를 총칭하여 조절성 내사시라고 하는데 보통 고도의 원시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절마비 굴절 검사 후 굴절 이상을 안경으로 교정해주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안경 처방과 함께 수술을 병행하여 치료하기도 합니다.

비조절성 내사시 조절과 무관한 내사시로 생후 6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영아 내사시, 6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후천 비조절 내사시 등이 있습니다. 영아 내사시는 사시각이 크고(30프리즘 이상) 원시는 +3.0 디옵터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시가 동반될 경우 수술을 해도 재발할 수 있으므로 가림 치료로 약시 치료를 먼저 한 후 수술을 하는 것이 치료 원칙이며 수술 시기는 늦어도 2세 이전에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성 내사시 실제 사시가 없는데도 외관상 사시처럼 보이는 경우로 미간이 넓고 코가 낮아 안쪽 환자위가 눈꺼풀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하면서 콧대가 서면서 가려졌던 환자위가 노출되면 내사시같은 모양은 사라지며, 각막에 빛을 비추어 각막 중심에 각막 반사가 나타나면 가성 내사시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굴절 조절 내사시(A. 안경으로 교정하기 전, B. 안경으로 교정 후)

외사시

처음에는 외사위로 나타났다가 간헐성 외사시로 진행하고 나중에는 현성 외사시로 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로하거나 멍하게 있을 때 사시가 나타나고, 밝은 태양광선에 노출되면 비주시안(덜 사용하는 눈)을 감거나 비비는 증세를 보일 경우 간헐성 외사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치료는 안경 교정, 프리즘 렌즈, 약시 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으나 비수술적 치료의 효과는 한계가 있어 대개는 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수술 시기를 놓치면 양안시 기능이 떨어지고 약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4-6세 사이에 수술을 하는 것이 적기로 알려져 있으며 대개 20프리즘 이상의 사시가 있거나, 약시 혹은 입체시기능의 저하가 있을 때 수술의 적응이 됩니다. 수술 방법은 외직근을 원래 부착부위보다 후방으로 부착시켜 바깥으로 당기는 힘을 줄여주는 양안 외직근 후전술을 많이 시행하나 사시 정도 및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대부분의 환자가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복시를 호소하나 대개 2-3개월 지나면 회복이 되며,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 눈이 약간 안으로 물리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소아사시 궁금증에 관한 FAQ

소아 사시 수술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0세 미만에서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10세가 되기 전 수술을 받으셔야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용상 큰 문제가 없다면 사시 수술을 안 해도 되나요?

사시는 미용상 문제 뿐만 아니라 약시, 입체시 기능 저하 등 시각기능에도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은 간단하며 수술 당일부터 바로 볼 수 있고 눈 안쪽의 외안근을 조절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도 큰 변화가 없으므로 수술시기를 지연시키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시 수술은 언제 하나요?

보통 20프리즘 이상의 사시가 있거나, 약시 혹은 입체시기능의 저하가 있을 때 수술의 적응이 됩니다. 4-6세 사이에 수술을 하는 것이 적기로 알려져 있으며 수술 시기를 놓치면 양안시 기능이 떨어지고 약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적 치료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대부분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안경 교정, 프리즘 렌즈, 약시 치료 등의 방법이 이용되기도 하지만 치료 효과에 한계가 있어 수술 치료가 선호됩니다.

최첨단 디지털 뇌혈관 촬영장비 도입으로 머리를 열지 않고 치료하는 뇌졸중 혈관내 치료

혈관내 치료란 기존의 뇌수술과 달리 머리를 열지 않고 뇌졸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인하대병원은 2010년 4월부터 최첨단 디지털 뇌혈관 촬영장치를 도입하여 뇌졸중에 대한 혈관내 치료(뇌혈관중재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교수 | 신경외과

• 전문분야 : 뇌졸중, 중재적뇌혈관내수술, 뇌혈관질환

• 진료시간 : 화(오후), 금(종일)

• 문의 : 신경외과 ☎032-890-2370



Endovascular
Treatment for Stroke

Endovascular Treatment for Stroke

뇌졸중이란?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뇌가 망가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크게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구분됩니다. 뇌졸중에 의해 발생하는 뇌 손상은 그 정도에 따라 신체 장애, 마비, 의식저하 등의 결과들이 초래하게 되며 치료를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거나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5대 증상

- 편측 마비(팔-다리, 얼굴)
- 갑작스러운 의식장애
- 갑작스러운 시각 장애
- 갑작스러운 보행 장애와 평행장애 및 어지럼증
- 갑자기 발생하는 매우 심한 두통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

뇌졸중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발생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CT 조영술(CTA)이나 MRI를 이용한 뇌혈관촬영(MRA)으로 뇌혈관 협착이나 뇌동맥류 등을 미리 발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적 치료를 통해 뇌졸중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은 2010년 4월부터 최첨단 디지털 뇌혈관 촬영장치를 도입하여 뇌혈관의 정밀한 입체 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으며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뇌졸중에 대한 혈관내 치료(뇌혈관중재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혈관내 치료란 머리를 열지 않고 국소마취나 전신마취 하에서 허벅지에 약 3~4mm 가량 절개를 하고 대퇴동맥을 통해 얇은 관(카테터)을 뇌혈관까지 밀어 올려 뇌경색과 뇌출혈 등 뇌졸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뇌경색 환자들은 약물을 사용하여 막힌 혈관을 뚫어주거나 뇌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혈관내 치료가 도입되면서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스텐트(금속그물망)를 삽입하거나 풍선으로 좁아진 부분을 넓혀 주는 치료가 가능하며, 막힌 혈관까지 직접 카테터가 도달하여 막힌 부분을 뚫어주어 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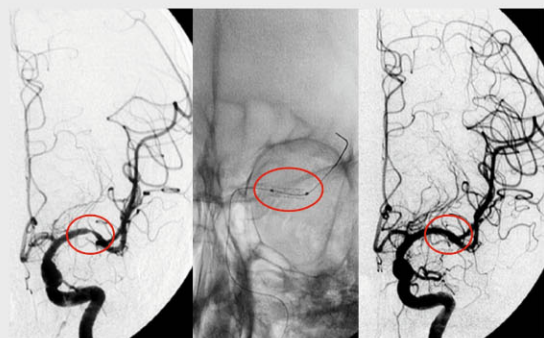
현재까지 대부분의 뇌경색 환자들은 약물을 사용하여 막힌 혈관을 뚫어주거나 뇌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혈관내 치료가 도입되면서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스텐트(금속그물망)를 삽입하거나 풍선으로 좁아진 부분을 넓혀 주는 치료가 가능하며, 막힌 혈관까지 직접 카테터가 도달하여 막힌 부분을 뚫어주어 뇌

[뇌혈관 협착증의 스텐트 삽입술]



▲ 정상 뇌혈관

▲ 뇌혈관 협착



▲ 치료 전

▲ 치료 중

▲ 치료 후

뇌졸중의 예방 및 치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혈압, 심장병, 당뇨 및 고지혈증 등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흡연자는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혈류를 좋게 해줍니다. 특히, 최근(2010년3월)에는 뇌혈관 전용 스텐트가 국내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되어 뇌혈관협착 환자들에게 정교하고 세밀한 치료 및 안정적인 치료가 보편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출혈의 경우, 혈관내 치료를 통해 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일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하며 혈관 벽이 약해진 부위에 주로 발생하게 되며 파열 시 뇌출혈 (뇌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보통 40~60대에 호발합니다. 뇌동맥류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며 매년 인구 10만 명당 10~20명에서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시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 환자의 약 30%가 출혈과 동시에 사망하게 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50%에서는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되거나 일부는 사망하게 됩니다.

뇌동맥류의 치료는 동맥류의 출혈을 막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전통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머리를 열고 수술하는 뇌동맥류 결찰술이 있으며, 최근에는 백금코일을 이용하여 머리를 열지 않고 동맥류를 치료하는 혈관내 치료(코일색전술)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에서는 이 두 가지 치료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완벽하게 뇌동맥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뇌동맥류의 경우에도 CT 조영술(CTA)이나 MRA를 촬영하면 약 95% 이상에서 뇌동맥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비교적 안전하게 예방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위험요인

뇌졸중의 예방 및 치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심장병, 당뇨 및 고지혈증 등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흡연자는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가족 중 뇌졸중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험요인

▶ 고혈압

▶ 흡연

▶ 당뇨병

▶ 경동맥협착

▶ 심방세동

▶ 심장병

▶ 고지혈증(콜레스테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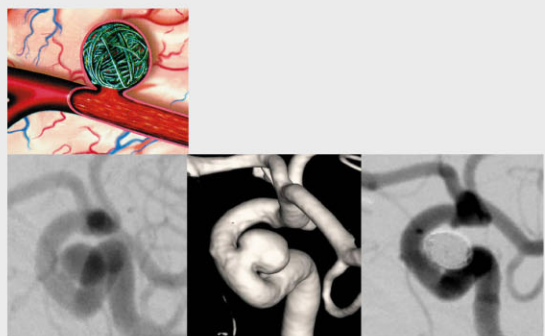
[경동맥 협착증의 스텐트 삽입술]



▲ 치료 전

▲ 치료 후

[뇌동맥류의 코일색전술]



▲ (좌) 치료 전

▲ (중) 치료 전(3차원 영상)

▲ (우) 치료 후

힘 덜 쓰는 '기술' 이 필요해!

오래도록 안전하게, 효과 백배 등산 즐기기

등산은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운동이다. 등산을 함으로써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살을 빼고, 심폐 지구력을 기르며, 스트레스까지 단숨에 날려 버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번 호에는 오래도록 안전한 등산을 즐기기 위해 산을 오르고 내릴 때 바람직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글· 김치중 운동처방사 | 비만센터



Mountain Climbing

인하대병원 당뇨비만센터에서는 해마다 당뇨인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같이 참여하여 총 1시간 반의 긴 코스는 아니었지만 좋은 공기도 마시며 환자들과 함께 운동에 관해 얘기도 나누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등산을 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개개인의 체력 수준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걸 느꼈다. 이러한 체력 수준은 나이와는 별개였다. 등산에 매료되어 매주 산악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코스가 평이하고 짧으며 올라가는 속도가 늦다는 등 귀여운 불멘소리를 늘어놓으며 힘차게 산을 잘 타셨다. 반면 평소에 운동을 접하지 않는 분들은 그리 높이 않은 경사에도 너무나 힘들어하시며 숨이 벅차셨다. 다행히 모두 다치지 않고 행사를 잘 마쳤으나 이러한 등산이 생각만큼 간단한 운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욕만 앞세우다 자칫 발목이나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관절이나 관절주변 조직이 찢어지며 만성 관절염으로 연결되기 쉬우며, 만성 관절염은 노후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올라갈 때 힘을 덜 쓰는 방법

등산도 기술이다. 비슷한 체력인데도 어떤 사람은 가볍게 산을 오르는 반면 어떤 사람을 매우 힘들게 오른다. 산에 오르는 동안 힘을 덜 쓰는 효율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자.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산에 오를 때 초반 5-10분 정도 어지럽거나 유난히 힘들다가 그 이후로는 이러한 증상이 사라지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몸은 에너지를 쓸 때 초반 5분 정도는 산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며 갑작스런 운동이 산소 부족 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에 오르기 전 반드시 가벼운 체조와 스트레칭을 통해 어느 정도 체온을 올린 후 천천히 걸으면서 서서히 심장 박동을 빨라지도록 해야 한다.

스트레칭은 심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인 순서는 손→가슴부위→등→목→허리→엉덩이→허벅지→종아리→발목 순서이다.

둘째, '약간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보행 강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자. 이러한 느낌은 구체적으로 숨이 약간 차면서 옆 사람과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이다. 이러한 느낌을 넘어서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 우리 몸은 피로 물질인 젖산이 체내에 급격히 증가해 피로가 빨리 몰려오게 된다. 그러므로

파트너가 아닌 내 체력 수준에 맞춰 산에 오르는 게 중요하다. 셋째, 상체를 앞으로 굽혀 발바닥 전체로 딛자. 허리를 곳곳이 세우고 경사진 등산로를 오르면 무게 중심이 뒤로 가기 때문에 다리에 더 많은 힘을 써야 한다. 또한 하중을 발 앞쪽에만 두면 다리 근육에 무리가 오고 그만큼 체력 소모가 빨라진다. 발전체를 던져야 자세도 안정되고 힘도 분산된다.

넷째, 걸을 때 움직일 때 벗고 휴식 시 입자. 많은 사람이 산을 올라갈 때 걸을 때 입을 닫고 땀을 흘려 휴식 시 벗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이다. 등산 시 체온 조절이 중요하며 되도록 땀을 적게 흘리는 게 좋다. 체온을 고르게 유지하려면 체온이 올라갈 때 가벼운 차림을 하고 땀이 식으면서 체온이 떨어질 때 옷을 껴입도록 하자.

근육통을 예방하는 하산 방법

등산으로 인한 관절 손상은 대부분 산을 내려올 때 발생한다. 하산 시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전해지는 충격은 체중의 3-5배이다. 특히, 산을 내려올 때는 이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 상태여서 힘이 터벅터벅 걸음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충격은 증가한다. 그래서 무릎 관절이 좋지 않는 분들에게는 내리막 경사 때문에 등산을 피하시라고 얘기한다. 같은 맥락으로 몇몇은 살을 빼기 위해 집 앞 아파트 계단 오르기 내리기를 반복하는데 이런 분들은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 하는 게 관절을 보호하는데 현명한 방법이다.

산을 내려올 때 바람직한 보행은 무릎을 조금 굽히고 등도 약간 앞으로 숙여서 걸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만큼 무릎에 가는 충격은 덜어진다. 또한 대다수가 하산 후 정리 운동을 하지 않는데 반드시 하산 후 마무리 스트레칭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등산 후 가져오는 피로 회복 및 근육통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등산을 마친 후 몸에 무리가 없으면서 하루 정도의 숙면으로 피로가 회복돼 다음번에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제대로 된 등산을 하는 것이다. 개인의 체력 상태에 따라 등산 시간과 코스를 서서히 늘리도록 하자. 또한, 평소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다리근력 운동은 등산을 무리 없이 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문의 : 비만센터 | 032-890-3360

경인방송과 함께 한 소외계층 대상 무료수술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등잔 밑을 밝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커진 요즘 인하대병원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0년 경인방송과 인하대병원이 함께 하는 <사회 소외계층 무료수술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힘겹지만 사정상 치료를 미루고, 참고 견뎌왔던 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드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할아버지의 꺼져가는 빛을 밝혀주세요” _ 이상복 님

이상복 님은 우측 눈의 백내장이 심해져 더 지체하다가는 한쪽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배우자 또한 2009년 직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중인 관계로 집안 형편상 진료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여서 나날이 한숨만 늘고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인 손녀딸의 사연 신청으로 이상복 님은 밝은 세상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투병생활하시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손녀의 효심과 간절한 바람으로 이상복 님은 꺼져가는 세상의 빛을 다시 환하게 마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복 님은 오는 6월 22일 수술 예정이다.

“이제야 활짝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_조언너님

조언너님은 웃는 날이 많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했던 아들은 몇 해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고 며느리는 투병생활 중으로 거동이 힘들 정도이다. 청년기를 훌쩍 넘은 손자 두 명이 있으나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국가에서 보조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월 90만원이 이들 4인 가족의 생활비 전부다. 조언너님은 이러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질환을 그대로 지닌 채 살아야만 했다.

하지만 손녀 장여진 씨의 용기로 어둠속에만 있던 가정에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었다. 현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숨기고 싶기도 했지만 세상 앞에 당당하고 보다 밝은 미래를 꿈꾸고자 세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장여진 씨의 사연 신청으로 조언너님은 자궁적출 수술을 통해 지긋지긋했던 자궁질환으로부터 벗어나 활짝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곳곳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사연이 경인방송을 통해 방송되어 많은 이웃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늦었지만 이제 당당하게 세상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_곽락문님

남구청 저소득 독거노인 관리 대상자인 곽락문님은 결혼을 하지 않아 가족들이 전혀 없다. 그나마 있는 두 여동생이 이 세상을 함께 하고 있는 피붙이의 전부이나 그들의 사정도 여의치가 않다. 첫째 여동생은 정신분열 피해망상



치료중이며 둘째 여동생은 독일인과 결혼하여 독일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발가락 괴사 3개, 하지 기능장애 3급인 곽락문님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상태이며 수술비 마련이 어려워 긴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 발가락 괴사도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정을 알게 된 인천 남구청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곽락문님은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조금은 불편하지만 당당히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인하대병원 은 일회성이고 형식적인 이벤트성 사회공헌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지역주민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따뜻한 인술과 세심한 배려로 지역주민들을 돌아보고 어두운 등잔 밑을 밝혀 소외받는 계층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꿈꾸어 봅니다.

글 · 박경환 | 홍보팀

* 문의처 : 인하대병원 진료지원팀 김기화 사회복지사_032-890-2870 경인방송_032-830-1000

자원봉사자 단체 영화관람 후기

아직도 눈물이 나는 ‘친정엄마’

영화가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창피한지 모르는 눈물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엄마와 극장으로 데이트 나온 날입니다.

글·윤영미 | 자원봉사자 심숙분 님의 딸



심숙분 님(입원간호서비스센터)과 딸_필자



엄마 덕분에 공짜영화를 관람한다는 아줌마적인 생각으로 바쁜 아침 설렘과 흥분으로 살짝 아이들에게 건성이었던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극장으로 오는 내내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려 하기 전에 인하대병원 자원봉사자실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직 따뜻한 맛난 떡과 음료 등 간식을 먹으면서 어린이처럼 마냥 신나 하느라 함께 관람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멈추지 않는 눈물을 누가 볼까 둘러보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 봉사자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였다는 걸……. 그리고 엄마도 자원 봉사를 하고 계시다는 걸……. 자기 자신 만을 위해 살아다 버거운 세상에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나누고 계신 우리의 어머님들 앞에 숙연해졌습니다.

한때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엄마가 안타까워 자원봉사는 뭐 하러 가냐고 잔소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병업체를 하시며 우연히 인연을 맺은 인하대병원 자원봉사자실을 4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목요일이면 봉사하러 가십니다. 입원간호서비스 안내를 꼬박 서서 하는 게 힘드실 만도 하신데 항상 웃으시면서 즐겁게 하십니다. 다른 봉사자 분들 역시도 엄마와 같은 마음일 거구요.

자신을 위해 바쁘게 사시다가 봉사를 가셔서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눔을 주시는 것이 그분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무조건적으로 자식에게 한없이 내려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친정 엄마를 연기하는 배우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자 모든 자원봉사자의 모습이고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옆자리의 엄마가 더욱 자랑스러웠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울고 있다는 게 쑥스러워 엄마와 눈 맞추도 못했는데 엄마도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에겐 이제 안 계신 친정엄마 생각에 가슴이 메셨던지 연신 가슴을 쓸어 내리셨습니다. 지금 엄마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 있던 엄마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올라 왔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과 엄마를 보며 꼭 나와 엄마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자신은 못 배워서 힘들게 사셨으니 내 딸은 꼭 공부 많이 시켜야한다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대학 공부 시키느라 힘드셨고, 좋은 것, 맛있는 것은 아직도 이 딸을 위해 아껴두셨다 내어주시는 우리 엄마.

이제 아이를 낳고 딸을 키우는 엄마가 되고 보니, 어렵듯이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엄마의 깊은 맘을 어찌 다 알 수 있을 까요? 나의 딸에게 엄마처럼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나의 딸들 생각을 먼저하고 있네요.

영화가 끝나고 엄마와 헤어진 후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지만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캔슬레 엄마에게 짜증 아닌 짜증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자신보다 아직도 이 못난 새끼를 챙기는 엄마 때문에 속상해서.

엄마 사랑해요! 이 세상 그 누구 보다 깊은 사랑을 주신 당신을…….



김수원 님(중앙공급실)과 손녀딸



김복자 님(수술장), 조남숙 님(진료상담, 입원간호서비스센터) - 시누이와 율케



남선자 님(외래안내, 내시경실), 윤석인 님(호스피스) - 친구



신순희 님(중앙공급실)과 어머니

♣ 인하대병원 자원봉사자실에서는 1년에 한 번은 수고하시는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공연이나 영화를 단체 관람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친정엄마"를 자원봉사자 가족과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병원중환자간호사회 2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다녀와서 가슴을 울리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2010년 3월 18일부터 이틀간 양재동 EL tower에서 20개국 600여명의 간호사가 참석한 병원중환자간호사회 20주년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인하대병원은 5개 집중치료실에서 팀장을 비롯한 30여명의 간호사가 참석하였다.

글 · 이효심 간호사 | 특수간호팀 내과계 집중치료실 B



코리아 드림 퍼포먼스 팀 Boom Boom의 Opening Ceremony를 시작으로 이틀간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심장의 박동소리 같은 태고의 울림 같은 북소리! Grand Hall 전체를 날려버릴 듯이 두드리고 울려 퍼지는 북소리는 20개국 600여명 간호사들의 가슴을 감동으로 흔들었다.

뒤이은 시상식에서 인하대병원은 3개 부문을 수상 하게 되었다. 집중치료실 교육위원회의 'Incident rate and Influencing factor of Delirium in Intensive Care Unit' 외과계 집중치료실(B)의 'Risk Factor and Incidence of Deep Vein Thrombosis in Critically Ill Patients' 가 많은 출품작 중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논문부문을 수상하였고 내과계집중치료실(B)의 필자가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사랑', '기도' 라는 제목의 사진으로 Best photo-

graphy 부문을 수상하였다. 국제 학술대회가 마치 인하대병원의 축제인 것만 같아 자랑스러웠다.

이후 두 개의 강연장에서 Today : 'A Way to the Future of Critical Care Nursing' 주제로 18편의 구연발표와 48편의 포스터발표가 진행됐다. 중환자실 실무교육, 간호연구, 근거기반간호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데이브 헨스 전 미국 중환자간호사회회장은 "중환자간호의 핵심가치는 환자와 가족, 환자안전, 신뢰도이며, 특히 환자안전만을 위해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드 윌리엄스 전 세계중환자간호연맹 회장의 환자안전 가이드라인을 소개에 이어 고윤석 대한중환자의학회장, 조용애 병원중환자간호사회장 등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Simulation Session에서는 인공호흡기, 신대체요법, 심부정맥혈전증 예방 등의 중환자실에서 일어나는 특수 중재와 관련되어 최신 이론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졌다.

강연장 밖에는 필립스, 드래거 등 최신 의료장비 및 의료기구 시연이 있었다. 간호사들은 최신 이론을 듣고 최신 의료장비나 기구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벤트 홀에서는 전국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UCC 발표와 사진 전시회가 있었다. 사랑의 장기기증본부에서는 이벤트를 열어 장기기증의 의미도 되새기고 이벤트에 당첨되면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바쁜 간호 현장에서 나와 모처럼 만의 여유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틀 동안의 풍성한 일정이 끝이 나고 19일 저녁 Gala dinner party가 있었다. 외국에서 멀리까지 와준 데이브 핸슨 전 미국 중환자간호사협회장과 게드 윌리엄스 전 세계중환자간호연맹 회장에게 조용애 병원중환자간호사회장이 한복을 선물하였다. 한복을 선물로 받자 그 자리에서 바로 갈아입고 한복의 선과 아름다운 색깔에 큰 감탄을 하였다. 한복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소가 지어진다.

중환자간호사회를 위한 공로상 수상 이후 이벤트 및 국제 학술대회

축하 무대가 이어졌다. 인하대병원은 내과계 집중치료실(B) 장진희 간호사를 리더로 10명의 간호사가 전문 댄스 그룹 못지않은 춤 실력을 뽐냈다. 3교대와 바쁜 업무 중에 시간을 쪼개서 연습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훌륭한 공연이었다. 그들에게 보내는 박수와 환호로 공연장은 떠나갈 것만 같았다.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다. 올해로 나는 인하대병원에 입사한지 10년, 집중치료실에 근무한지 10년이 된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지나갔고 수없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를 만났으며 그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만났다. 기뻐했던 적도 있었고 좌절했던 적도 많았다. 병원 로비나 외래에서 반갑게 웃으며 만났던 환자도 있었고, 안타깝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도 있었다.

열의에 불타서 일했던 순간도 있었고, 타성이나 관습에 젖어 일했던 적도 있었다. 이번 학회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타성이나 관습에 젖어 있는 내안의 나를 버리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거 중심의 간호를 하는 간호사로 거듭 나고 싶다.

Opening Ceremony의 가슴을 울리는 북소리처럼 감동으로 환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좌측에서 핵의학과 김창호 기사장, 인사팀 김시현 과장, 핵의학과 서정미(필자), 핵의학과 김봉수, 핵의학과 김은정, 의대 강재승 교수

겨울설악의 눈꽃 산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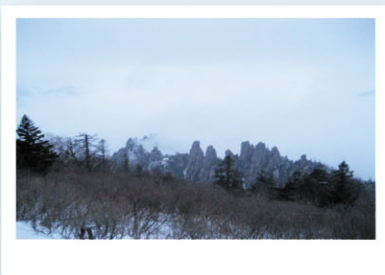
더위가 성큼 다가왔다. 일상에 지친 하루, 지난 겨울설악의 시원한 설경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

2010년 2월 27일, 올 겨울 마지막 눈 구경을 하기 위해 벌써 2시간 째 배낭을 꾸리는 중이다.

겨울산행이라 옷, 음식 등 어느 것도 정리가 쉽게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설악의的雪景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

남편의 전승을 받으며 설악산으로 향한다.

글 · 서정미 | 핵의학과



산행 일시 : 2010.2.27~2.28

산행 구간 : 한계령- 중청- 소청(1박)- 회운각대피소- 양폭- 천불동- 비선대- 설악동



설레임, 한계령을 향해 출발

산에 올라갈 때 덤썸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서울의 날씨는 따뜻하고 포근하지만 한계령에 도착 하니 칼 바람과 눈보라, 우박까지 무척이나 춥다. 난생 처음 착용해보는 아이젠과 스패츠를 하고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처음 착용하는 장비라서 그런지 다리는 천근만근이지만, 어딜 보아도 멋진 雪景에 감탄만 연발하게 되고, 갑자기 눈이 밝아지며 즐거워진다. 나의 입에서는 雪花, 雪景, 멋지다, 와……

계속 말만하지 말고 빨리 서둘러가야 산장에서 잘 수 있다고 재촉하면서도, 사진만은 꼬옥 찍어야 한다는 강재승 교수님, 천천히 구경하고 가라는 낭만파 김창호 선생님, 하산의 달인 김시현 과장님, 든든하게 끝까지 믿음직한 태극마크를 단 김봉수 선생님, 20대의 마지막 여행이라며 산행을 결심한 튼튼하고 귀여운 막내 김은정 선생, 나 6명은 너무도 행복하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눈길을 밝기 시작했다.

인생이란, 고난으로 가는 길

눈에 빠지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칼 바람을 맞으며 도착한 골짜지에서 떡과 간식을 먹고 오늘의 휴식을 할 수 있는 소청산장으로 향했다.

소청산장은 중청봉 북쪽사면을 가로질러 가는 길은 가야동계곡 상류로 내려치는 가파른 길목에 위치한 등고선을 따라 가는 길이며, 선착순 숙박에 확 트인 일몰의 풍경, 공룡능선이 앞에 버티고 있어서 산꾼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거센 바람 탓에 소청으로 향하는 길은 그리 쉽지가 않았다. 오른쪽을 보니 미끄러지면 굴러 떨어질 듯 하다. 멀리 공룡능선이 보인다. 또 한번 발이 눈에 빠졌다. 김창호 선생님이 간신히 빼내주시긴 했는데 그 깊이가 꽤 깊다. 무섭다. 빨리 소청산장에 가고 싶다.

숨이 턱까지 찬다. 다 귀찮아 진다. 雪花를 보는 순간 苦痛을 내려놓고 감상에 젖어본다.

나뭇가지에 얹혀진 모양을 보아서는 흐트러짐 없이 자기의 자태를 뽐내지만, 작은 햇살에 발힘이 약해 스스로 아니 약간의 흔들림에 떨어지는 아주 나약한 雪花를 보며, 우리 人生도 이와 같이 나약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달콤함, 산장에서의 휴식

소청에서 바라본 공룡능선은 안개로 인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살짝 보여줄 때 웅장함과 멋스러움에 그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산장에 도착하여 따뜻하고 아담한 방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몹시 피곤 할 것 같았는데 소청에서 바라본 그 감동의 여운 때문인지 별로 힘들지 않았다.

김창호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밥과 된장국은 너무도 맛있었다. 웅기종기 모여 꿀맛 같은 저녁을 먹으며, 산행에 대한 얘기가 무르익을 즈음 갑자기 소동이 되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雪花, 雪景, 공룡능선의 안무가 지루 생각난다.

내일의 여정을 생각해서 달콤한 잠을 청해야겠다.

아쉬움, 천불동 계곡으로의 하산

다음날 소청에서 회운각으로 하산하는 길은 매우 가파랐다. 가만 있어도 눈과 함께 흘러내려갈 정도이다. 소청에서 회운각의 가파른 내리막길 계단에 힘이 들지만 소나무에 얹혀진 눈은 너무나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곳을 먼저 지나간 사람들이 엉덩이 썰매를 타고 내려간 탓에 길은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다. 김시현 과장님이 먼저 엉덩이 썰매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다. 나는 겁이 많아 엉덩이방아를 쥔으며 간신히 내려왔다. 회운각 대피소, 양폭산장을 거쳐 천불동 계곡의 철계단을 내려오며 또 한번의 雪景을 본다. 내 마음도 맑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계곡들 사이로 비선대가 보인다. 이곳 하산 길에서 비선대를 보면 고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막걸리와 파전을 먹었다. 신선이 된 느낌이다. 한번 더 보고 싶다. 아쉽다. 이 겨울의 마지막 雪景……

행복, 자연의 위대함

갑자기 이루어진 산행이라 준비를 많이 못하고 가서 걱정했지만, 동행하신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하산하여 속초버스터미널로 향하면서 산행을 마무리했다. 강원도의 雪景이 너무 멋져서 오는 길도 지루하지 않아 너무 행복한 하루를 또 보냈다.

이제껏 다녀본 산행 중에 제일 큰 想念에 젖어 보았다. 추위, 허기짐, 힘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약함을 다 표출하고 드러낸 산행이었으며, 자연 앞에 작아지고 작아지는 것이 인간의 존재가 아닌가 하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본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최선이란 이름의 나를 만들 것이다



2009년 10월 23일 캘리포니아 LA 락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만해도 나는 이렇게 긴 동안 내가 한국 병원에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2010년 3월 10일 오전9시20분 인하대병원 흉부외과 윤용한선생님 외래 약속' 3월에 끝도 없이 두텁게 깔린 하얀 눈 길, 나의 집 강화도의 농촌은 온통 순백의 하얀 반짝임에 잠기어 고요하기만 하였다. 부모님과 나는 다른 날보다 일찍 서둘러 눈길에 고요히 잠기어 있는 길을 따라 강화도 집을 나와 인천 인하대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2009년 10월 23일 캘리포니아에서 중요한 시험을 보기 위해 언니와 함께 입국했다. 입국하기 1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늑골 하측 부에 통증이 심하고 기운이 빠지며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와 병원에도 가보았고 감기 약 처방을 받아 약을 먹었으나 낫지를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었다. 시험 도중 가래가 목을 조여왔고 숨이 확확 막혀왔지만 미국에서까지 보러 온 시험이라 약착같이 책임을 다해야 했다. 시험이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었다. 그러나 숨이 차고 가래가 끊임없이 나왔다.

그래서 인하대병원 응급실에 첫발을 디뎌놓게 되었다. 응급실에 들어온 지 20분 만에 기흉이란 폐질환으로 폐가 1/5만 남아 있어 바로 흉관 삽입술로 폐의 공기를 빼주지 않으면 심장이 눌러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이므로 바로 응급 처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폐기흉의 원인은 치료하기가 어려우니 폐 이식을 준비하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모두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우리는 항상 전원주택가 공기 좋고 환경 좋은 곳만 찾아 일부러 살았고, 우리 가족은 아무도 술 담배와 전혀 상관없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우리들의 최선을 찾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병원을 옮긴지 13일 후 나는 양쪽의 흉관을 하나씩 제거하고 퇴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폐 이식을 등록하지 않았다. 아직 나의 최선이 폐이식이란 의술을 최선으로 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월4일 나는 나의 또 다른 최선을 택해 미국에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드디어 다시 캘리포니아 학교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려 탑승수속을 하는 도중 왼쪽 어깨 앞가슴상위 부분에 기흉 증상과 같은 통증을 느꼈다. 그래서 인하대병원 인천

공향의료센터에 들른 결과 기흉 가능성이 높다하여 비행기탑승이 거절 되었고 다시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그래서 부모님과 나는 밤새 여러 병원 응급실을 찾아 전전공공하였다. 발을 동동구르는 어머니에게 편안하게 “어머니 인하대병원 윤용한 선생님에게 가고 싶어요.”라고 조용히 말씀드렸다. ‘다른 병원으로 갔던 환자를 선생님께서 다시 받아 주실까? 혹 섭섭했다고 부당한 불친절이나 받으면 어쩌지……’ 그러나 그러한 나의 생각은 기우였다. 윤용한 선생님께서는 다른 병원으로 간 환자인 나를 마음에 두시고 무척 걱정하시고 안타까워도 하시며 어떠한 의술로든 고쳐보고자 고뇌하시는 최선의 선생님이요 여전히 우리를 걱정하시며 만나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나의 염려가 순간 날라가며 나의 통증과 고통을 선생님에게 무작정 빨리 말기고 싶었으며 쓸데없는 걱정으로 한 시간이라도 더 병원에 오는 것을 망설이고 지체하고 여러 병원의 응급실을 전전공공하며 고통 받은 것이 후회되기도 하였다. 환자의 쾌유를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보호자와 같이 아니 어쩌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빌고 있는 분이 바로 주치의의 사 선생님이며, 담당 수술 주치의이셨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몸은 아프고 나의 꿈은 아스러져 가는 것 같은 괴로움과 슬픔의 도가니 속에서도 나는 나의 20살의 꿈이, 나의 앞길이, 조난당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아파도 책을 눈에서 떼지 않도록 노력했고 한 단어라도 더 외우려 노력했다. 그렇게 내가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윤용한 선생님께서 내가 소외감을 느낄 사이가 없이 보살펴주신 배려와 12층 서병동 간호사님들의 친절하시고 세심한 간호 때문이었다. 인하대병원 12층 서병동 간호 팀은 간호의 감동 실천 그 자체라고 설명하고 싶을 정도로 훌륭했다. “훌륭하다!”는 감탄 외에는 다른 형언이 없다. 퇴원해 집에서 쉬는 편안함과 기쁨을 무엇에 비교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편안함 가운데 예서도 빙그레 미소와 함께 그리워진다. 그 얼굴들이 윤용한 선생님, 밝은 웃음과 빠른 섬김의 간호사 여러분들, 수간호사님의 유머, 친숙한 여러 레지던트, 인턴 선생님 여러분들, 부지런한 청소부 아줌마에 친절한 배식 아줌마까지 즐거웠던 병실, 병원이 그리우면 안될 것 같은데 자꾸 떠올라 진다.

모쪼록 인하대병원의 최선을 다하는 따뜻한 의료진의 손길들이 부지런히 더욱더 많은 환자들을 만나 건강을 되돌려줌으로 모두를 건강하게 함께 기여하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3월 퇴원의 다짐〉

내 속에 나는 또 하나의 나를 만들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기적을
그 기적은 생명을 살린다고 선포할 것이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내 속에 나는 또 하나의 나를
최선이란 이름의 나를 만들 것이다.

〈白衣 찬미〉

첫째 날 : 선생님의 가벼운 흰 가운 그것은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둘째 날 : 선생님의 흰 가운 그것은 위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털 같이 푸근한 위로였습니다.
셋째 날 : 선생님의 흰 가운 최고라는 자만자의 예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고라는 자만에는 행복하나 최선이라는 약속에 기를 세운 가장 거룩한 깃발이며
순수가 걸쳐야 할 가장 거룩한 갑옷 중 하나 일 것입니다.

인하대병원 병동에서 CS 환자 김긋시아

“고객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 - CS BOOM UP 경연대회

2010년 3월 18일(목),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에서 교직원들의 고객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2010년 CS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CS Boom Up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 내용은 CS 우수직원 및 CS 공모 우수자 시상을 비롯하여 CS리더 임명과 CS 현장 선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UCC 공모 수상작 상영 등 기존의 딱딱하고 지루한 행사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CS 개념을 제시하여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으며, CS 현장 선포를 통하여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다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CS 공모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 | 회복실 이경미



우수상 | 병리와 정경환



우수상 | Q팀 이혜수



우수상 | 신생아실 오승은

CS 공모 표어 부문

반짝이는 미소짓고 먼저한발 다가가면
고객기쁨 두배되고 고객아픔 반이된다

최우수상 | 병동간호1팀(서12병동) 강진영

친절은 기본! 만족은 필수! 감동은 생존!

우수상 | 병동간호1팀(동15병동) 정혜란

함께해요 친절미소 실천해요 내가먼저
이루어요 고객감동 만들어요 평생고객

우수상 | 병동간호1팀(18병동) 김나현

친절의 씨앗뿌려 미소의 꽃피우고
고객감동 열매맺는 사랑가득 우리병원

우수상 | 병동간호2팀(7병동) 김소영

CS BOOM UP

임상시험 참여는 신약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하는 연구에 동참하는 것

Q : 새로 개발한 약을 임상 시험한다고 들었습니다. 임상 시험에 참여하면 신약을 먹을 수 있나요?

A : 임상 시험이란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적 효과 등을 확인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합니다. 임상 시험은 보통 1상, 2상, 3상, 4상의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 1상 임상 시험은 신약의 인체 내에서의 동태를 관찰하거나 부작용 여부 등을 알아내기 위해 시행되며, 2상은 신약 용량의 적절성과 약효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3상의 경우는 신약의 유효성이 확립된 이후 시판 허가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임상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험약군과 비교 대조약군을 동시에 설정하게 되므로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경우 시험약군 또는 비교 대조약군에 무작위로 배정되게 되어 반드시 신약을 복용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경우 임상 시험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검사와 치료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신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연구에 참여한다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습니다.

Q : 여러 가지 임상 시험에 참여해도 되나요?

A : 임상 시험에 참여하고 싶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현재 받고 있는 약물 치료에 가장 적합한 임상 시험의 참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상 시험 참여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임상 시험의 목적, 시험약 또는 비교 대조약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하여 기존 치료방법과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고객이 되어, 다양한 보험의 평생혜택을 하나에 담았습니다

무배당

LIG 웰빙보험

보험업계 최초 100세보장 통합보험 -

- 100세까지 나와 내 가족의 일생을 평생보장
- 꼭 필요한 보장만 골라 하나로 통합보장



희망파트너 **LIG** 손해보험

www.LIG.co.kr • 고객센터 : 1544-0114



정확한 진단을 기본으로 '수술의 최소화'가 원칙 세계적인 병원과 어깨 나란히 할 그 날까지

전병원 _ 전영훈 원장



1990년 남동구 만수동에 개원한 남동 신경외과의원은 1995년 전병원으로 개칭하고,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척추 및 관절 전문 진료기관인 전병원은 지난 4월 또 한 번의 확장 기념 개원식을 가졌다.

약 200병상의 규모를 갖추고, 첨단 의료기기와 전문 의료진과 함께 더 여유로운 공간을 갖춘 척추, 관절은 물론 내과, 종합검진 전문병원으로 또 다른 출발을 하였다.

이번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진료실 및 입원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을 완벽히 차단하는 무균, 무진 청정시스템을 마련, 운영 중이다.

최첨단 의료장비 보유 뿐 아니라 인천의 지역병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전병원의 끊임없이 공부하는 전문 의료진 역시 탄탄하다.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척추질환에 대해서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 원장은 강조한다. 척추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바른 자세를 생활습관화하고 평소에 정기적인 걷기 운동과 허리, 목 강화운동 및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야 할 뿐 아니라 금연과 비만인 사람은 체중조절을 해야 한다.

전병원은 척추질환 치료에 관한한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한다. 첫째는 척추수술은 가급적 하지 않고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증상에 따라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전병원에서는 최소 침습적 수술을 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원칙이다.

이 최신 방법은 수술 중 인체의 정상 구조물들은 최대한으로 보존하며 병소만을 정확하게 제거하는 수술 기법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병원의 치료원칙은 '수술의 최소화' 이고 환자의 척추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비 수술 치료의 첫걸음이어서 근본적 치료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이유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 원장의 의료장비에 대한 욕심 역시 대단하다.

전병원의 전영훈 원장은 가장 소중한 것은 환자라는 기본 인식을 갖고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명심하며 작지만 강한 병원으로 키우고 싶은 바람을 전한다. 아울러 척추, 관절 질환에 관련한 세계적인 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할 그 날을 꿈꾸며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032-464-6181





인하대병원, JCI 인증 획득을 위한 막판 스팅트 [Focus Survey]



4월 26일, 27일, 양 일간 JCI 인증획득을 위한 본 평가에 앞서 최종 모의고사인 Focus Survey를 실시했다. 분야별 현황점검 및 미비점 도출을 바탕으로 보안책 마련을 위해 준비된 자리였으며 Focus Survey 후 JCI 컨설턴트의 예리한 강평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번 Focus Survey는 본 평가인 Accreditation을 앞두고 Policy & Procedure 점검 및 부서 Trace를 통한 평가였으며 두 분의 컨설턴트들은 앞으로 남은 2개월간 준비해야 부분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었고 특히 수검태도, Survey시 직원들의 응대요령 등을 강조하였다.

최첨단 암치료기 <래피드아크> 도입 기념식 개최 ●

4월 13일 인하대병원 지하1층 방사선 중앙학과에서 래피드아크 도입기념식을 개최했다. 박승림 의료원장은 “사이버나이프, 래피드아크, 4차원 CT 모의치료기(simulator)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완치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라며 “동북아시아의 글로벌 헬스케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뿐 아니라 ‘Safe Patient, Smart Hospital’을 염두에 두면서, 수도권 암 전문병원으로 차별화 전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은 국내 최초로 방사선 수술장비 사이버나이프와 방사선 암치료기 래피드아크를 동시 도입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방문, 의료관광 활로 개척 ●●

인하대병원 임원진은 지난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나보이 지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아리랑 요양원 준공기념식 참가 차 실시되었으며, 대한항공 물류기지가 위치한 나보이 지역의 의료환경조사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의료관광 산업에 있어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인하대병원 홍보전시관 완공 - “인하대병원의 역사를 한 눈에” ●●●

5월 4일, 인하대병원 임원실 내에 위치한 <인하대병원 홍보전시관>이 완공되었다. 홍보전시관은 본원의 설립이념과 비전은 물론 본원의 역사, 그리고 최신장비와 사회공헌활동, 언론보도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인하대병원을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원 후 대외적으로 수상한 상패와 상장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JCI 인증 추진 개선활동 사진전 - “환자를 위해 조금 더” ●●●●

인하대병원 적정진료관리실 Q팀은 1층 로비에서 “환자를 위해 조금 더”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약 10일간 진행하였다. 이번 사진전은 JCI 인증을 위해 전



교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활용하여 전시한 것이다. 개선 전후의 모습을 비교하며 작지만 큰 변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블루스카이 투어단 본원 방문 ●

5월 13일부터 이틀간 일본 “블루스카이투어”가 본원을 방문하였다. 블루스카이투어 마케팅부 부장 나카오 시게히로를 비롯한 8명의 방문단은 일본의 의료관광 신규고객 유치에 위한 모니터 투어를 위해 본원을 찾았으며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해 촬영도 실시했다.



일본 고베 국제의료재단 다나카 고이치 이사장, 인하대병원 내방 ●●

5월 11일, 일본 고베 국제의료재단(Kobe International Medical Foundation)의 다나카 고이치(Koichi Tanaka MD) 이사장과 일행이 인하대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의료기기 개발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는 물론 HT 고속화 사업 관련 네트워크 기관협력과 IFEZ 내 “바이오 메디칼 파크” 프로젝트 개발 참여에 관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환자 안전주간행사 - 〈Disaster Drill 2010〉 실시 ●●●

5월 10일, 인하대병원 대강당에서 핵심재난 교육 및 훈련이 실시되었다. 재난 패러다임 개요 및 간과, 현장 명령 체계와 현장 안전이라는 주제로 전문강사의 강의를 실시되었으며 위험평가와 지원, 치료와 이송 등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던 유용한 교육내용이었다.



제7회 QI 학술대회 개최 ●●●●

4월 5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7회 QI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구연발표, 포스터 발표, QI Feedback 활동 우수부서 사례발표, 타 병원 사례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를 바탕으로 조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수술실/마취통증의학과의 “수술부위 표지와 Time Out 수행률 향상활동”에 1등의 영광이 돌아갔다.



인천신문 및 지구마을복지협회와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5월 11일, 인하대병원과 재단법인 지구마을복지협회, 그리고 인천신문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바탕으로 지구마을 복지협회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일부 또는 신청금액의 전액을 지원하고, 인하대병원은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환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인천신문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HT 고속화 사업관련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4월 6일,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실에서 인하대병원과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현재 HT 고속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질병유효성평가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의료산업 분야에서 산업화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 발전과 학술교류를 위해 국가 산업에 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

3월 22일, 인하대병원과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의료산업 분야에서 산업화를 촉진하고 공동연구발전과 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양 기관의 교류 및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협력 분야는 기술정보교류, 상호 기술자문, 학술회의 공동개최, 협동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다각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하대병원과 대한항공이 함께하는 1사1촌 자매결연마를 의료봉사 성료 ●●

4월 30일, 인하대병원과 대한항공이 함께하는 1사1촌 자매결연마를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송산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된 이번 의료봉사는 인하대병원 의료진과 대한항공 본사 및 제주KAL호텔 사회봉사단과 함께 실시되었다.



제8회 인하당뇨인 산행 실시 ●●●

본원 당뇨내분비센터에서는 4월 17일, 토요일 양평 중미산으로 제8회 당뇨인 산행을 다녀왔다. 본원에서 당뇨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본원 산악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당뇨인 산행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숲 속을 걸으며 당뇨병 관리 의지를 고취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건강 문화 최고경영자 과정 3기의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 결연식" ●●●●

4월 7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에서 건강 문화 최고경영자 과정 3기의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 결연식"을 실시했다. 지난 3월 17일 입과 한 40여명의 CEO들은 인하대병원 임상과 교수 및 전문간호사와의 맞춤 결연식을 통해 평생의 건강 동반자로서 서로 약속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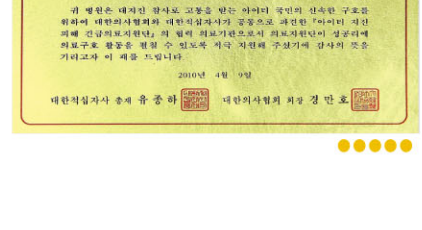
인하대병원 환우를 위한 부활절 칸타타

2010년 4월 5일, 부활절을 기념하여 인하대병원 동아리 힐링엔즈에서는 환우들을 위한 "부활절 칸타타"를 실시했다. 병마와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에게 쾌유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주며, 마음에 평화로움을 가득 선사한 공연이 되었다.



인하대병원, 아이티 의료지원 관련 감사패 수상 ●●●●●

4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아이티 긴급의료지원단 해단식>이 실시되었다. 이날 해단식에서 본원은 인류애를 실천하고자 자발적으로 희생했던 인하사회봉사단의 공헌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또한 이홍식 인하사회봉사단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 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아이티 지진피해 긴급 의료지원단> 2기 단장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박애·봉사정신으로 봉사단의 안전하고 완벽한 임무완수에 큰 공을 세워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적십자 특별회원으로 선발되었다.



인하대병원 신경외과 현동근 교수 - 대한신경손상학회 최우수 논문 선정

5월 15일, 신경외과 현동근 교수는 대한신경손상학회 제17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



문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주제는 “Production of Postoperative Drainage Volume and Brain Expansion of Chronic Subdural Hematoma” 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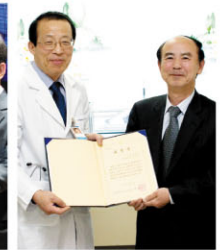
정신건강의 날, 김철웅 연구부원장,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

4월 2일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의 날”(4월 4일)을 기념하여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정신보건분야 공헌자에 대한 수상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철웅 연구부원장님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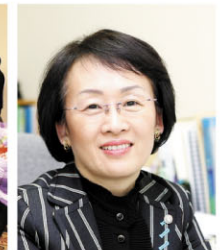
소아청소년과 김순기교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

지난 4월 20일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교수는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병원학교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특수 교육 발전과 장애인 의식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교수, “제3회 암예방의 날” 기념행사서 국무총리상 수상 ●●●●

3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암예방의 날(3월 21일)을 앞두고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3회 암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교수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인하대병원의 위상을 드높였다. 김우철 교수는 인천지역 암등록본부장을 맡고 있다.



인사교육팀 박혜옥 부장, 인천광역시 간호사회 회장 당선 ●●●●●

2010년 3월 10일(수), 인사교육팀 박혜옥 부장이 “국민건강권 구현을 위한 간호교육의 선진화” 주제로 열린 인천광역시 대의원 총회 에서 〈제8대 인천광역시 간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박혜옥 부장은 현재 인천광역시 병원간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파랑새 소식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홈페이지 www.inha.com>여성암센터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http://cafe.daum.net/inhabluebird) ▶문의 여성암센터 ☎ 890-2560

2010년 5월 13일 경기도 양주 운길산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뒤늦게 찾아온 봄을 만끽하며 파랑새 회원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파랑새 행사일정]

파랑새 나들이 : 6월 11일~12일, 1박 2일

좋은 향토방에서 함께 잠을 자며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회비 5만원, 각팀장에게 신청)

한유연(한국 유방암 환우회 연합회) 양재천 걷기대회 : 6월 마지막 주



인사동정

보직임명 및 확인

소속	성명	발령사항
특수간호팀	곽경선	외과계중환자실B 간호단위책임자
특수간호팀	박정아	심혈관계중환자실 간호단위책임자
건강증진센터	정수진	건강증진센터 간호단위책임자
병동간호2팀	홍선주	서 9병동 간호단위 책임자

임용

신경과	촉탁전문의	박희권
소화기내과	전임의	기성호
류마티스내과	전임의	문창기
외과	전임의	박일재, 이호길
성형외과	전임의	박준호
안과	전임의	양석재
이비인후과	전임의	조병한, 최정석
응급의학과	전임의	백진휘
산업의학과	일반의	박찬운
치과(구강외과)	인정의	장재원
치과(보철과)	인정의	김승미

전근

소속	성명	발령사항
병동간호1팀	이승미	외과(전담간호사)
특수간호팀	이은주	외과(전담간호사)
특수간호팀	신선영	진료지원팀(심장혈관센터 심초음파 전담간호사)
특수간호팀	김난희	진료지원팀 (골.조직은행 조직취급담당자)
병동간호2팀	최경희	병동간호1팀
총무팀	유길준	산업의학과

이달의 친절직원

- 4월
병동간호2팀(서 10병동) 박진영
- 5월
교육수련부(신경외과 2년차) 이우진

자원봉사자 모집

인하대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봉사해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 자 격

- 만 60세 미만으로 주 1회(3시간) 최소한 6개월 이상 활동 가능하신 분
- 각종 교육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

2. 봉사활동시간(평일)

- 오전 : 9시 ~ 12시 / 오후 : 1시 ~ 4시



3. 봉사자에 대한 예우

- 3시간 이상 봉사 활동시 식권 지원
- 봉사당일 무료주차
- 행사 참여 : 야유회, 송년회, 간담회
- 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
- 의료비 감면(6개월 이상 봉사자)
- 자녀(중고생) 인하대병원 학생자원봉사활동 참여 우선 자격 부여

봉사활동 부서별 내용

활동부서	대 상	활동내용
소아청소년과	입원, 외래환아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동화구연
외래안내	내원객	진료상담, 진료실, 검사실 위치안내, 동행안내
도서대여	입원환자, 보호자	무료도서대여, 반납, 정리
이미용 봉사	입원환자	이미용(병동방문)
호스피스	입원환자	세발, 간병, 목욕, 말벗
진료지원부서 (중앙공급실/수술실/세탁실)		진료재료 공급, 거즈나 붕대접기, 의료소모품 정리 환자가운 등 세탁물 정리

● 문의 : 지하 2층 자원봉사실 담당 - 신소영 ☎032-890-2873



Global Inha

주차장 입구를 찾고 있는 환자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는데,
오늘은 주차장 안내와 주차 안내에 대한 영어회화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병원 B2층에서 주차장을 찾고 있는 외국인)

- **Intl' patient:** Excuse me, where is your parking lot? I parked on the B2 floor, but I can't find parking lot entrance at all.

외국인환자: 실례지만,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하2층에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주차장 입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 **Staff:** The Parking lot B2 floor and the hospital B2 floor are separated, so you can't go parking lot on this floor. You can find parking lot entrance is only through parking office on the B1 floor and there is a way to parking lot B2 floor.

직원: 저희 주차장 지하2층과 병원 지하2층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에서는 주차장에 가실 수 없고, 병원 지하1층 주차 정산소를 통해서 주차장 입구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차장 지하2층으로 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 **Intl' patient:** Thank you and who do I talk to about getting free parking permit?

외국인환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면 제가 무료주차 확인을 받을 수 있지요?

- **Staff:** When you reach the parking lot entrance, the parking attendant will validate your parking ticket. Please walk up these stairs to the B1 floor.

직원: 주차장 입구에 도착하시면, 주차장 직원이 주차티켓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 계단을 통해 지하1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Global Inha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병원에서 쓰이는 영어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병원 영어 회화가 있으시면, 원본의 엽서 또는 inhapr@inha.com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원고모집

원보 인하대병원은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글 재주가 없다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주변의 잔잔한 이야기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적은 글은 읽는 이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어보십시오.

■ E-mail : inhapr@inha.com

■ 보낼 곳 : 홍보팀

☎ 032-890-2803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08. 07. 09 ~ 2010. 07. 08

인천 우체국
제40050호

받는 사람



인하대병원
www.inha.com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인하대병원 홍보팀

원보편집실 앞

4 0 0 - 7 1 1

퀴즈 퀴즈 제54회

※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퀴즈 정답과 의견을 독자엽서에 작성하시어, 원내 고객의 소리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홈페이지(www.inha.com)를 참고하시고 인터넷으로 응모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1 다음은 소아 사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취학 아동의 3%가 사시로 진단 받을 만큼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 ② 사시는 미용상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것이다.
- ③ 영유아 등 검사 협조가 어려운 환자에도 판정이 가능한 검사법이 있다.
- ④ 소아사시 수술은 만 10세 미만에서만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2 베체트병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베체트병은 면역세포에 문제가 생겨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질환으로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다.
- ② 증상은 입 안과 성기의 궤양, 피부에 붉은 결절 및 관절염이 나타나는 등 전신에 걸쳐 나타난다.
- ③ 베체트병은 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 ④ 여성에게서 발생빈도가 더 높고, 주로 20~3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

3 2010년 JCI 인증을 목표로 전 진료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포함한 포괄적인 질 향상, 업무의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병원 환경도 정비해 나가고 있는 인하대병원은 이에 발맞추어 새롭게 변화된 병원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당신의 현명한 선택,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 Choice, ○○○○ Care 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제작하였다.

※당첨된 분들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

Quiz 정답

1

2

3

♣ 제53회 QUIZ 정답

- ① 4
- ② 3
- ③ 6

♣ 당첨을 축하합니다

- 김성심 서울 강남구
- 한성순 인천 남동구 구월2동
- 이은영 인천 남동구 간척2동
- 김희진 인천 중구 중앙동
- 최수미 진단검사의학과

인하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601)
-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 748-910002-39804
(예금주)인하대병원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10년 05월 14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267명	763,890,348원	652,453,546원	

◎ 기부자 현황 | 2010년 03월 10일 ~ 2010년 05월 14일 현재

일 자	성 명	약 정 액	비 고
10.03.10	김굿시아	1,010,000	(완납)
10.04.05	김영수	5,000,000	소화기내과(완납)
10.05.03	남문석	20,000,000	임상시험센터장/내분비내과 교수(완납)

|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 - 참가비 7만원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 •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 유방암 환자의 식이 •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6/10(목), 7/14(수) 오후 2시 ~ 4시	3층 1 세미나실	(032)890-2560

| 갤러리 전시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작가
2010. 5. 25(화) ~ 2010. 6. 19(토)	이희성, 노현숙 동행전	이희성, 노현숙
2010. 6. 19(토) ~ 2010. 7. 17(토)	황성희 작가 초대전	황성희
2010. 7. 17(수) ~ 2010. 7. 31(토)	장경숙 개인전	장경숙

■ 대표전화 1600-8114(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진료과	교수명	신체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신체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심장내과 (㉔2200)	이우형	*	고혈압, 관동맥질환, 고지혈증	월, 금		심장혈관센터 (㉔2440~1)	신장센터 (㉔ 2533)	김문재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내과학과 병행				
	박승근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월, 목				이승우	*	혈액투석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권 준	*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수	월, 화			송준호	*	혈액투석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대혁	*	부정맥, 실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수, 목	월						수						
	우성일	*	관동맥질환, 심혈관중재술, 고혈압	화, 금	월, 수						수						
	신성호	*	심부전,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월, 화	목, 금												
	박상돈	*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화, 목, 금												
	일 반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수												
소화기내과 (㉔2224)	김영수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내시경	월, 화, 목		내시경센터 (㉔2540~1)	혈액종양내과 (㉔2219)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폐암센터				
	신웅은	*	소화관질환, 위·대장질환	월, 금	수				이문희	*	종양학, 혈액학	수, 목		월, 수			
	이돈형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목	월				이현규	*	종양학, 종양학	(월), 화, 금		수 (목)			
	김형길	*	소화관질환, 소화관암, 대장질환	수, 금	월				임주환	*	종양학, 혈액학	월		화, 목, 금			
	권계숙	*	소화관질환, 변비클리닉	수, 목	화				장혜정	*	종양학, 혈액학	목, 금		화			
	이진우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내시경	화, 목, 금	목												
	정 석		해외연수(2009. 9 ~)														
	이정일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대장내시경	월, 수	수, 금												
	방병욱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목												
	양병혁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월												
	임희환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금												
	호흡기내과 (㉔2219)	이홍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금)			월, 금	■폐암센터	류마티즘센터 (㉔2210~1)	박 원	*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화, 수, 목	월	
곽승민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월, 화 (수), 금	수		권성렬	*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월, 수, 금	화, 목				
류정선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월 (화), 목	화, 목 (월)		임미진	*			관절염, 척추염, 통풍	월, 화, 목	수				
조재화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집중진료의학	수, 목	월, 화 (수)		윤지열	*			관절염, 골다공증	금	월, 수				
남해성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수, 금	(화), (금)		문창기	*			관절염, 골다공증	수	화, 목, 금				
폐암 내과 센터 (㉔3890)		이홍렬	*	폐종양	금		내과계열반 외 과 (㉔2250)	김철우 일 반			전식, 만성기,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월, 수, 목	화				
		곽승민	*	폐종양	수										금		
		류정선	*	폐종양	화, 목	월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조재화	*	폐종양		수											
		이현규	*	폐종양	월	목											
		남해성	*	폐종양		화, 금											
		흉부외과	김광호	*	폐종양	화											
	김정택		*	폐종양	월	목											
	윤용한		*	폐종양	수	금											
	조성연		*	불안장애		화											
	당뇨내분비센터 (㉔3360, 2215)	김용성	*	당뇨병, 비만, 내분비	월, 화 (목), 금	목			○비만센터 △여성암센터(갑상선조직검사)	김장웅 정인재 박익일 이호일 일 반	최선기	*	소아외과, 대장항문질환		화	금	○여성암센터 △비만센터
		남문석	*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화, 목										월, 수		
홍성빈		*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수, 목	월 (화), 수						금						
김소현		*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수	화, (수), 금						월						
이정진		*	당뇨, 내분비질환	금	월, 화						목						
비만 내분비내과 센터 (㉔3360, 2215)	김용성	*	당뇨비만(성인)	목		흉부외과 (㉔2280)	김광호 백완기 김정택 윤용한	폐질환, 식도질환, 다한증, 기흉	화(목), 목		■폐암센터						
	김소현	*	성인비만, 대사증후군, 이형당뇨병		수					금		화					
	박치현	*	여성비만, 산후비만		월					월(목)		월, 목(목)					
	허윤석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화						수(목)		수, 금(목)					
	최윤미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수													
	성형외과 소아	김연수	*	재활치료, 유방축, 유방하수고형, 복부성형				수									
신장내과 (㉔ 2229)	김문재	*	신장질환, 고혈압	월, 화		혈액투석진료	신경외과 (㉔2370)	박종은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월, 목	★사이버,이프센터				
	이승우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화, 금	월, 수				박형천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월, 수		수			
	송준호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수	월, 목, 금				김은영	*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원경동, 소아	월, 수		월, 수			
	주우철	*	신장질환	금	수				박현선	*	뇌동맥류, 경동맥질환,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목), 목		목(목)			
									현동근	*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	수		월, 수			
									윤승환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금		화 (수), 금(수)			
							정준호	*	뇌종양, 중재적뇌혈관수술, 뇌혈관질환	금	화, 금						
							일 반		화	목							

토요일 오전진료는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만 가능하오니 기타 진료과의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신력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신력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정형외과 (☎2380)	오인석	*	족부 및 족관절, 인공관절수술, 슬관절염, 골절	월, 수	수		■비만센터(PS 외래에서 진료)	이비인후과 (☎2420)	장태영	*	비교, 귀성형, 알레르기, 수면무호흡	수, 목	월	코성형 : 수요일 △여지리움중심클리닉 △맹방염/중이염/노인 △맹방염/중이염/노인	
	김려섭	*	스포츠의학관련, 술과절, 주관절, 족관절, 관절염, 관절염	목	화, 목	김영모			*	두경부중양(목), 음성언어(편도x)	화, 목	월			
	문경호	*	인공관절수술(고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화, 목	화	김규성			*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편도	월	수(△)			
	김명구	*	스포츠의학관련, 전관절염, 인공관절수술, 관절염	월, 수	수	최호석			*	해외연수(2010. 1 ~)					
	강준호	*	인공관절수술(고관절, 슬관절), 관절염	월, 수	월	임재열			*	두경부중양, 갑상선, 음성장애, 편도	금	화, 금			
	조규정	*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추간증, 골다공증	화, 금	수	김영호			*	소아이비인후과, 편도, 수면무호흡, 비파	월	목			
	이동주	*	해외연수(2009. 9 ~)			최정석			*	이과	수	화			
	김범수	*	족부, 족관절, 소아정형, 외상	금	월, 금	조병환			*	두경부	화	금			
	원만희	*	관관절, 술관절, 수부, 중앙		금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반				화, 수, 목										
성형외과 (☎3870)	황 건	*	얼굴외상 및 기형, 선천기형, 미용	화, 목	화		■비만센터(PS 외래에서 진료)	정신과 (☎3880)	강민희	*	정신분열병, 우울증, 일중증, 노인성정신장애	수, 금	월, 화	우울조율병클리닉 조기정신병클리닉 형성클리닉/정신과 2과제 △치매노년기클리닉 △치매상담센터 노인치매클리닉	
	김연수	*	유방건전, 유방성형, 미용수술, 미세수술	월, 수, 금	수(■)	김철웅			*	난치성 정신분열병, 외상성장애, 불안장애, 조기사형	월, 목	화, 목, 금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이정섭	*	소아정신성신과학, 학습, 주의력, 언어, 아동장애	월, 화, 목, 금	화, 목, 금	△치매노년기클리닉 △치매상담센터 노인치매클리닉		
								배재남	*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인기 정신장애	화, 목	월, 수, 목(△)			
피부과 (☎2230)	최광성	*	모발, 조각질환, 여드름, 모발이식, 피부외과, 레이저	월, 금	(월△), 화, 목	△피부미용레이저클리닉 △미용외과클리닉		신경과 (☎3860) 만15세이상 진료가능	하충건	*	운동장애, 퇴행성질환	화, 수	수, 목	운동장애클리닉 뇌졸중클리닉 기억, 언어장애클리닉 수면클리닉	
	신성현	*	아토피피부염, 알러지, 색소질환, 두드러기, 피부미용, 레이저	수, 금	월, 화, (금△)				나정호	*	뇌혈관질환, 뇌졸중	화, 목	월, 목		
	인승균	*	건선, 여드름, 미용외과	(화△), 목	화, 목			최성혜	*	치매, 기억장애	수, 금	화, 수	기억, 언어장애클리닉 수면클리닉		
	송희진	*	백반증, 피부미용, 피부노화	화, 수	(수△), 금			윤창호	*	간질, 수면장애(교과이, 수면무호흡 등)	월, 금	월, 수			
	일 반			월	월 (화·수·목·금)			박희권	*	뇌졸중, 말초신경	월, 수, 금	금	만15세 이상 진료가능		
								김소현	*	뇌졸중, 두통, 어지러움증	화, 목	금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만15세 이상 진료가능		
비뇨기과 (☎2360)	서준규	*	성기능장애, 여성배뇨장애, 불임	화, 금	화			재활의학과 (☎2480)	정한영	*	뇌졸중중증, 뇌혈관질환, 장애평가, 뇌성마비	월, (금△)	수	△뇌성마비클리닉 △언어장애 △족부클리닉	
	박원희	*	요실금, 중앙, 전립선질환	월, 수	수				김창환	*	근골격계통증(요통, 오십견, 말초신경병)	화, 수, 금	목		
	윤상민	*	중앙, 결석, 신이식	월, 목	목			김명옥	*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목, 수	목, (목△), 금(△)	△척추클리닉 △척추클리닉		
	성도환	*	중앙, 결석, 전립선질환	화, 금	목			일 반		일반내과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이택	*	소아비뇨, 소아 및 성인배뇨장애, 야뇨증	목	월, 목										
	류지간	*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비뇨기외상	수	월, 수										
	일 반		일반비뇨기	월, 화, 목, 금											
산부인과 (☎2270)	이우영	*	부인과중양	(월△), 목(△), 금(△)		□여성암센터	△비만센터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	가족간장관리, 금연	월, 화, 목	화, 수, 금	간센터파견 △비만센터	
	이병익	*	중앙악, 불임·폐경기	수, 목, 금	월	이연지			*	한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월△), 수, 금	월 (화△), 목(△)			
	송은섭	*	부인과중양	월 (화△), 수(△)				일 반		신체검사(내유학, 비자용) 영문진단서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황성욱	*	해외연수(2009. 9 ~)					박홍재	*	일반내과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박지현	*	주산기의학, 산과초음파	월, 수	(월△), 수, 목			통증치료실 (☎3921)	이두익	*	통증치료	화, 목	화		
	성승미	*	산과, 내시경	화, 목, 금	화				차영덕	*	통증치료	월, 수, 금	월, 금		
	박정우	*	부인과중양		(월△), (목△), (목△)			영상의학과 (☎2740)	이미현	*	통증치료	월, 수, 목	수, 목		
	정현재	*	산과, 내시경	월, 수, 금					김원홍	*	HIFU 초음파 치료	월, 수	월 화 수 목		
								조승구	*	중재적 방사선학	월, 수, 목	월, 수			
								전용선	*	중재적 방사선학	화, 금	화, 금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화, 목, (금△)	월 (화△), 수(목△), 금	*사이버나이트센터 재활인도 센터 2층	
									김한정	*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월, 수, 금	월, 화, 목		
								사이버 나이트 종양학과 센터 신경외과 (☎3076)	김우철	*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금	화		
									김한정	*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월, 목		
								박한선	*	뇌종양, 뇌혈관기형	화	목			
								윤순환	*	척추, 척수, 말발성종양	수, 금	수, 금			
								핵의학과(☎3160)	현인영	*	동위원소치료	월, 화, 목	월, 화, 목		
									임종한	*	항암성질환, 화학물리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고령에 직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사업장 보건관리	화, 목	화, 목		
								산업의학과 (☎2861)	박신구	*	뇌, 심혈관계질환 및 뇌, 영유아질환, 업무관련성평가	월, 수	수		
									김환철	*					
								치과 (☎2470)	김일규	*	구강 악안면외과, 임플란트, 매식	월 화 수, 금	화, 목	임플란트클리닉	
									오남식	*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화, 목, 금	월, 화, 금		
								장금수	*	구강외과	수, 목	수, 목			
								이언화	*	교정과	월, 수, 금	월, 화, 수, 금			
								송경화	*	보존과	월, 화, 수, 목	화, 목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응급의학과(☎2301)	일 반		응급의학, 악물중독	수	수		

최첨단 암 치료기의 새로운 혁명! RapidArc & Cyberknife



RapidArc
Cyberknife

보다 빠르고 정확한 최신기술 방사선 치료장비 래피드아크

래피드아크는 21세기적 치료라고 각광받는 세기조절방사선 치료(IMRT)와 영상유도방사선 치료(IGRT)가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여기에 2007년 개발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치료기술인 종양의 모양에 따른 맞춤형 회전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장비입니다.

최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된 현존 최고의 암 치료기 | 무통 · 무혈 | ‘로봇 사이버나이프’

실시간 종양추적 4차원 로봇 사이버나이프는 신체 장기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스템, 척추 암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춘, 기존의 4세대 사이버나이프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4차원 사이버나이프로 실시간 영상 유도 기술, NASA의 우주 항법 기술, 컴퓨터, 로봇 팔 등의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하게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www.inha.com

IGRT센터/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방사선종양학과 032)890-3070 신경외과 032)890-2370